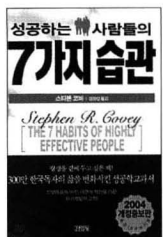


개인과 조직의 리더십 훈련, 흔들리는 한국사회에 새로운 지표 되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으로 유명한 스티븐 코비 박사(66)가 지난 10월 10일 한국을 방문했다. 10, 11일 양일간 한국리더십센터 주최로 열린 '2003 글로벌 리더십 페스티벌'에서 강연을 한 코비 박사는 "IMF 극복과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 등을 통해 한국인의 역동성과 문제 극복 의지를 실감했다"며 세 번째 한국 방문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번 강연회에서 21세기 경영의 목표인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식근로자의 확산'과 그들의 '생산성 향상', 그리고 '조직에서의 시너지 경영'에 대해 한국의 CEO와 기업 임직원, 대중들에게 강연하면서 노사갈등·이혼율 급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사회를 위한 대안으로 개인과 조직의 리더십을 소개했다. 주요 질문·응답을 중계한다.

박사의 저서는 '가정'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 이유와 본인의 자녀교육 모토에 대해 말해달라.

가족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회의 기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안정되고 행복한 가정에 저항세력이 많아지고 있어서 부모들의 책임이 커지고 있다. 내 자녀교육의 모토는 '부모가 아이의 학생이 되는 것'이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한다.

니케이션에서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바뀌어야 한다. 말한 것처럼 나는 주로 가족 속에서 느낀 경험을 토대로 글을 쓴다. 나에게 있어 가족은 평생의 실험실이다. 나는 결혼을 '두 가정의 DNA가 합쳐지는 것'으로 정의한다. 가정 내에서도 가족들을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상대방을 이해시켜야 한다.

당신의 트레이드마크는 '대머리'다. 머리를 일부러 깎고 다니는지 아니면 본래 대머리인지 궁금하다. 또 당신의 책을 보면 동양사상에서 영향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좋아하는 동양철학이나 존경하는 인물이 있으면 소개해달라.

나는 30년 동안 대머리였다. 그래서 아이들은 나를 요다라고 부른다.(웃음) 나는 동양서적을 매우 좋아한다. 코란도 좋아하고, 간디는 최고의 영웅이라고 생각한다.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선물로 책을 받았다. 그가 옥중에서 쓴 편지를 묶은 책이었는데 무척 감동적이었다. 동양사람들은 자기성찰을 많이 하는 반면, 서양은 행동중심적인 것 같다. 동양의 고요함과 서양의 추진력을 접목하면 상당한 지혜가 발휘될 것이다.

한국 독자들 중에는 당신의 가르침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나는 내가 가진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그건 나의 생각과 그것들을 글로 옮긴 책이다. 내가 쓴 글은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기업이 성공하는 데 큰 도움을 주기도 했다. 물론 그들의 성공은 나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경우에 따라서 지역사회나 학교, 교회 등을 돕는 차원에서 무료로 봉사하면서 원칙중심의 리더십을 전파한다. 그런 노력을 통해 시민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려는 생각도 있다.

GM모터스 사장이 한국 노사문제에 있어 경영진의 문제가 70퍼센트라고 말해 한국 경영자들에게 충격을 준 바 있다. 노조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한국 경영자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은가. 또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비판하는 일부 재계 인사들은 과거 박정희 정권 시절의 권위적인 리더십을 떠올리며 당시로 회귀하는 것을 바라기도 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노조는 경영자가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경영자와 노동자 모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환경 모델, 경제적인 공정성 보장, 친절과 존중 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권위주의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성립된다. 그러나 그건 지속가능하지 않다. 신뢰도도 없고 도덕적이지도 않다. 과거 보수적인 정권의 문제점은 세계사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권위적인 정권은 하나씩 무너져 갔다. 요즘은 모두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개개인의 목소리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추세다. 따라서 권위주의적인 정권은 최상의 형태가 아니라고 본다.

CEO를 대상으로 강연을 많이 하는데, 한국 CEO와 미국 CEO의 차이가 있는가?

사실 한국에서 강연할 때는 통역을 하기 때문에 그 느낌을 정확히 알기 힘들다. 그러나 일반적인 느낌으로 미국 CEO들과 비교할 때 아시아나 남미 CEO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더 잘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같아 보인다.

이날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중강연회에서 코비 박사는 "이전의 리더십은 고요한 물살에서 펼치는 조정경기처럼 지시를 내렸지만 지금의 리더십은 가파른 계곡에서 래프팅을 하는 것처럼 조직 구성원 모두가 제각기 판단하고 실천해야 전복하지 않는다"며 구성원들에게 '창의성을 발휘하면서도 남의 주장을 먼저 이해하려는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10일, 11일(장충체육관·'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주제) 이틀간에 열린 대중강연회의 행사 이익금은 '아름다운재단'을 통해 태풍 '매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재민들에게 전달돼 또 다른 훈훈함을 자아냈다.